김길리 실력에 행운까지… 홈에서 숲 질주

김길리가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0초884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EPA=연합뉴스

쇼트트랙 월드투어 1000m 우승
준결4위…美 선수 실격 어부지리
박지원은 남자 1500m서 은메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 김길리(성남시청)가 홈 관중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0초884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최민정(성남시청)은 동메달을 땄다.

이날 김길리에겐 행운이 따랐다.

그는 여자 1000m 준결승 2조에서 4위를 기록해 탈락하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조 커린 스토더드(미국)의 반칙이 인정돼 어드벤스를 받아서 결승 무대에 올랐다.

김길리는 결승에서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레이스 초반 후미에서 체력을 아끼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폭발적인 힘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3위로 달리던 김길리는 마지막 바퀴 첫 번째 직선주로에서 인코스를 파고들어 네덜란드 산드라 펠제부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그는 곧바로 인코스를 다시 노려 1위로 달리던 캐나다의 다나에 블레즈까지 따돌렸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박지원(서울시청)은 남자 15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박지원은 결승전 초반 선두에서 레이스를 이끌었다.

결승에 진출한 캐나다 선수 3명의 견제를 피하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박지원은 체력 부담을 이겨내지 못했다. 경기 후반 역전을 허용하며 윌리엄 단지누, 스티븐 뒤부아(이상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다만 심판진은 다른 선수와 접촉한 뒤 부아에게 페널티를 줬고, 박지원은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최민정, 김길리, 심석희(서울시청), 노도희(화성시청)가 출전한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메달이 나왔다.

대표팀은 4분11초855의 기록으로 캐나다(4분11초634), 이탈리아(4분11초787)의 뒤를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국은 4개 팀 중 최하위에 머물다가 결승선 3바퀴를 남기고 심석희가 네덜란드 선수를 제치며 3위로 올라섰다.

이후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온 힘을 다했으나 추가 역전에 실패했다.

취약 종목인 남자 500m에선 한국 선수 전원이 결승 무대를 밟지 못했다.

박지원, 박장혁(스포츠토토), 김태성(서울시청), 장성우(고려대)는 남자 5000m 준결승 2조에서 6분50초898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해 결승 진출권을 획득했다.

대표팀은 15일 여자 500m와 1500m, 남자 1000m, 혼성 2000m 계주, 남자 5000m 계주에서 추가 메달을 노린다.

한편 쇼트트랙 한국 대표팀이 올 시즌 처음으로 월드투어 계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지원, 김태성(이상 서울시청),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는 15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4차 대회 혼성계주 결승에서 2분38초036의 기록으로 중국(2분38초051), 캐나다(2분38초513)를 따돌리고 우승했다.

대표팀이 월드투어 단체전에서 1위에 오른 건 올 시즌 처음이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2위를 달리다가 결승선을 9바퀴 남기고 1위로 올라섰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김민재와 코리안 더비서 멀티골… 이재성 '펄펄'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팀 2-1 承
양팀서 가장 높은 평점 8.3 기록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공격수 이재성이 '철기둥'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펼친 '코리안 더비'서 멀티골을 폭발하며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달성의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마인츠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마인츠의 메바 아레나에서 열린 뮌헨과의 2024-2025 분데스리가 14라운드 홈 경기에서 혼자서 2골을 몰아친 이재성을 앞세워 2-1 승리를 따냈다.

'강호' 뮌헨을 잡은 마인츠는 승점 22(6승 4무 4패)를 쌓아 6위로 올라선 가운데 '선두' 뮌헨은 정규리그 개막 무패 행진을 13경기에서 마감하며 첫 패배(승점 33·10승 3무 1패)의 고배를 마셨다.

마인츠의 이재성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김민재가 중앙 수비수로 버틴 뮌헨을 상대로 전반 41분과 후반 15분 잇달아 득점포를 가동, 리그 4·5호 골의 기쁨을 맛보며 정규리그 득점 공동 13위에 랭크됐다.

이날 득점으로 이재성은 정규리그 10~14라운드에서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4골 2도움)를 달성, 이번 시즌 공격포인트를 5골 3도움(컵대회 1도움 포함)으로 늘렸다.

8월 DFB 포칼 1라운드에서 도움으로 시즌 첫 공격포인트를 따낸 이재성은 베르더 브레멘과 정규리그 3라운드에서 마수걸이 득점 포를 가동한 뒤 10라운드 도르트문트전과 11라운드 홀슈타인 킬전에서 리그 2·3호 골을 꽂았고, 12라운드 호펜하임전과 13라운드 볼프스부르크전에서 리그 1·2호(시즌 2·3호 도움) 도움을 잇달아 작성하더니 이날 뮌헨을 맞아 리그 4·5호 골을 폭발했다.

앞서 이재성은 10월 DFB 포칼 2라운드 뮌헨전에 결장해 김민재와의 맞대결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날 이재성과 김민재가 모두 풀타임 출전하면서 둘의 이번 시즌 첫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이날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이재성의 발끝은 전반전부터 뜨거웠다.

이재성은 전반 13분 역습 상황에서 자기 진영 중원에서 김민재가 헤더로 떨어뜨린 볼을 잡아 전방으로 쇄도하는 요나탄 부르카르트를 향해 정확한 전진 패스를 시도했다.

볼을 이어받아 단독 드리블에 나선 부르카르트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뮌헨의 왼쪽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이재성의 도움 기회는 무산됐다.

마인츠의 이재성(왼쪽)이 뮌헨의 김민재를 옆에 두고 선제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KIA 'MLB 88홈런' 위즈덤 영입 초읽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3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한 강타자 패트릭 위즈덤(33·사진)을 새 외국인 타자로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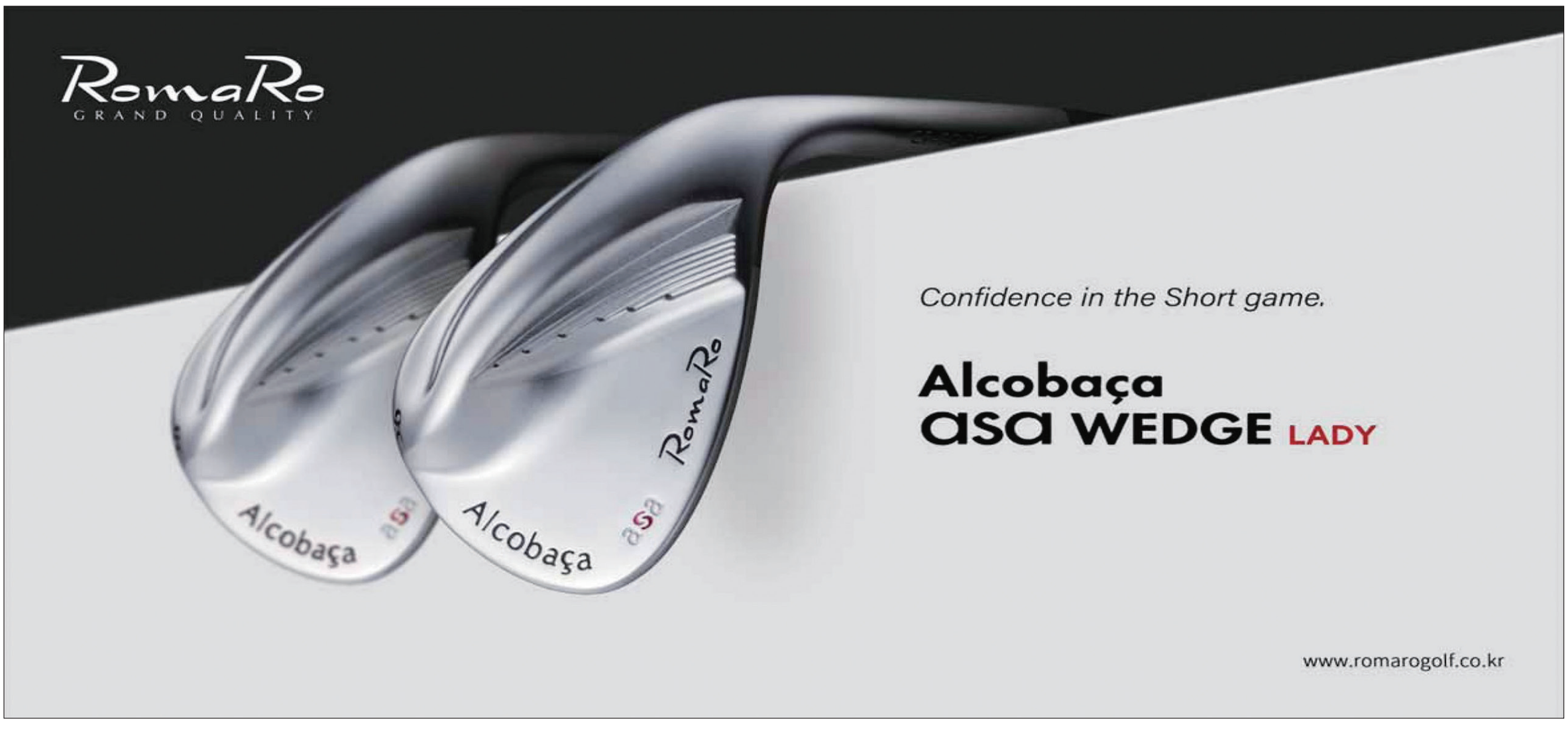
KIA 관계자는 15일 "위즈덤 영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신체검사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KIA가 새 외국인 타자와 계약하기로 하면서 기존 외국인 선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는 결별할 것으로 보인다.

우투우타의 위즈덤은 MLB 통산 455경기에서 88개의 홈런을 친 거물급 선수로 1루수, 3루수, 외야수로 뛰었다.

2018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카고 컵스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다.

위즈덤은 2021년 10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1, 28홈런, 6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823을 기록했고, 2022년엔 타율 0.207, 25홈런, 66타점 OPS 0.724로 활약을 이어갔다.

2023년엔 타율 0.205, 23홈런, 46타점, OPS 0.789를 기록했다. 올해엔 75경기에 출전해 타율 0.171, 8홈런, 23타점으로 부진한 끝에 방출됐다.

자유계약선수(FA)가 된 위즈덤은 MLB에서 새 팀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 멕시코 태평양 리그 소속 팀인 나랑해 로스 데 에르모시요와 계약했다.